

주제(Thesis):

- 첫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은 비유(parable)적이며, 역사적 사실 보다는 성서 전통에 충실한 전주곡(서곡)들이다(그 각각 복음서들의 축소판)
- 전주곡의 의미를 파악하면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지만, 그 의미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

문제점(Problems):

- 최초의 기독교 문서들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음 - 마가복음과 바울의 편지들의 경우
 - 최초의 기독교 전승이 아니고 나중에 생겨난 이야기들임을 추론하게 함
-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사실인가, 우화인가, 아니면 비유인가
 - 사실성(factuality) 문제 -> 17 세기의 계몽주의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등장에 의한 영향 -> 사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다
 - 현대의 세계관은 예수 탄생 이야기들의 사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-> 양자택일의 기로
 - 의식적인 혹은 고집부리는 문자주의 - 믿기는 어렵지만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온 ->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-> 사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
 - 예수 탄생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-> 혹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?

논점(Argumentation):

- 비유로서의 탄생 이야기들
 - 이 이야기들은 사실이나 우화로 읽기 보다는 비유(parable)로 읽을때 그 의미에 잘 접근할 수 있다
예) 많은 비유로 가르친 예수의 독특한 스타일 -> 비유들 속에 들어 있는 의도를 찾아야 함 -> 비유적인 표현은 그 의미에 관한 것이지 사실성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님 -> 문자적인 의미 이상이다
 - 역사적이며 비유적인 접근방식 -> 고대의 본문을 고대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함 =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야 함 ->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
 - 체제전복적인 이야기들로서의 비유들이 이야기 속에있다 - 유대인의 왕/하나님의 아들/세상의 빛(제국이 처형한 예수가)
- 비유로 된 전주곡
 - 예수 탄생 이야기들은 단순히 비유들만이 아니라 전주곡이다 -> 각각의 복음서의 축소판
 - 전주곡의 예: 바바라 투크만의 '8 월의 총성' 중 첫장 '장례식' - 제 1 차 세계대전의 전주곡/축소판
- '옛' 언약과 '새' 언약으로서의 성서 - 전통을 완성한다
 - 신약성서의 정통성 -> 유대교와 기독교 -> 구약성서의 완성으로서의 신약성서 -> 예수의 탄생을 그 전통을 완성하는 것 -> 각각의 복음서들의 축소판으로서의 전주곡이 필요
- 마태복음의 전주곡인 크리스마스 이야기 - 예수가 새로운 모세이다
 - 다섯 차례 하나님의 꿈 ->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과 지시 사항들
 - 다섯 차례 성서의 성취 -> 예언자들의 말씀이 성취된 사례들 -> 억지로 맞춘 거 처럼 들림
 - 새로운 모세가 새로운 시내산에서 새로운 율법을 준다 -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(5:17)
 - '다섯'은 모세의 오경을 상징하며 마태 5-25 장은 새로운 다섯 권의 오경

- 누가복음의 전주곡인 크리스마스 이야기 - 여자들, 변두리 인생들, 성령을 강조
 -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-> 가난한 사람들, 버림받은 사람들, 변두리 인생들 vs. 부자들의 의무
 - 성령에 관한 이야기 - '성령의 충만함'이 여러 사람들에게 옴. 그리고 예수의 세례 장면(약속&강림) / 광야에서 / 갈릴리에서 / 예수의 첫번째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-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세례, 성령강림절 장면(약속&강림)으로 강조 됨 - 성령은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영으로 계속 언급 됨

평가(Critique):

-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의 이야기들의 다른 점을 잘 비교분석하여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
- 예수 탄생의 이야기들은 그 각각의 복음서들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게 있었고, 앞으로 전개될 그 들의 이야기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있다

생각해 보기:

- 저자가 이야기하는 '사실성'의 문제 즉 '사실적인 것이 아니라면,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'(p46) 예를 들어 '동정녀 탄생'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'의식적인 문자주의'(p49)를 고집하여 왔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?
- 저자는 '우화'(p43)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은? 우화 혹은 신화? 우화에도 배울 것이 있는데...